

이념갈등 상흔 지우는 '치유의 벽화' 낙후마을 살리는 '생명의 벽화'



낡은 담장에 벽화가 그려지고, 곳곳에 작가 작업실이 들어서는 보성군 보성읍 월곡마을이 인근 태백산맥 문화길 등과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현존·사라진 누정 3742개 창건자·시기·위치 한눈에

호남유산 총서 '누정 기초목록' 출간

누각과 정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되던 우리의 전통 건축물 중 하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세 번째 호남기록문화유산 목록화 총서 '호남누정 기초목록'(전남대학교 출판부)을 출간했다.

이 책은 누정명, 창건자, 창건 시기, 위치, 참고문헌 등 누정에 대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호남 지역에 현존하는 누정뿐만 아니라 사라진 누정까지 모두 3742개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현 교수는 "누정 실태조사 등과 같은 호남 누정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기록문화자료에 실려 있는 누정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 책의 발간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 062-234-272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역-빛가람도시 문화기관

21일 콘텐츠진흥원서 상생 포럼

광주문화재단은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소속 8개 기관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간의 상생협력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상생협력 정책포럼은 광주문화기관협의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오는 21일 오후 4시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 1층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문화 연계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 정책포럼의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무용 교수(전남대 문화전통대학원)가 기조발제한다.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사회정책실장 등 10개 기관의 실무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62-670-7433.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립예술단체 합격자 10명 발표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립예술단체 간부 및 상임단원 공개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총 10명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2년 후 근무태도, 실기평정 등 종합평가 후 저격자에 한해 정식 상임단원으로 전환된다.

지난해말부터 공석이었던 교향악단 단무장으로 백홍승 씨가, 신실현 국극단 예술부감독으로 이상근씨가 뽑혔으며 무용단 트레이너로 오윤환씨가 합격했다. 그밖에 ▲이정현(호른 차석) ▲송애리(오보에 차석) ▲홍의정(바이올린) ▲장은지(소프라노) ▲홍유리(알토) ▲최민정(가야금) ▲김준영(국극단 타악) 등이 신입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의 062-613-83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벽화마을 탈바꿈한 별교읍 월곡마을

보성군 별교읍 월곡마을, 부용산에 이르는 골목에 들어서자 한여름의 햇살보다 여중생의 웃음소리가 먼저 취재진을 반겼다. 지난 16일 오후 2시의 일이다.

골목에서 내려다보이는 별교여중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피구를 하고 있었다. 공을 던지는 무리도 요리조리 피하는 아이들도 웃게 하는 '운동장 위의 작은 전쟁'. 공격도 수비도 행복해지는 한낮의 풍경은 소설 밖으로 뛰어나온 외서덕과 소화도 맨드라미꽃처럼 붉게 웃으며, 공을 던질 것 같은 환상을 불러 일으켰다. 골목의 낡은 벽을 장식한 아기자기 한 벽화는 이념과 전쟁도 가로막지 못할 상상의 세계를 펼쳐 놓았다.

최근 월곡마을은 몇몇 뜻있는 주민이 이기투합, 전쟁과 학살의 상흔을 평화의 벽화로 치유하고 있다.

시작은 단촐했다. 지난 2010년 별교고등학교 동문이 옛 스승을 만난 자리에서 고향을 위한 모임을 만들자며 '드림은 사회복지회'를 꾸렸다. 소문이 퍼져 시골 작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며 서울과 경기도 등지의 타지역 출신 회원 참여도 더 늘었다. 이 복지회는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50여 명이 타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회비를 모아 지난 3월부터 벽화 작업을 시작했다. 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월곡마을에는 110가구 중 30가구가 빈집이다. 또 주민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이다.

복지회는 1억5000만원을 들여 '낙후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벽화팀 '나로인해'와 함께 낡은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백설공주, 미래 소년 코난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벽에 그리고 있다. 현재는 30여 점의 벽화가 완성됐다.

낡은 양철지붕 밑에는 셋노란 스폰지밥 캐릭터가 자리 잡았고, 나무 유리창 밑에는 꽃을 꺾어 든 파파스머프와 스머페트가

2010년 꾸린 '드림은 사회복지회' 주축

주민들 손으로 폐가 매입하고 벽화 작업

인근 부용산 등 연계 문화관광 명소 부상



그려졌다. 주민의 마실 길에는 아기공룡 둘리와 마징가가 마중을 나간다.

국내 어느 벽화마을의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일부 지워지지만 월곡마을에서는 코팅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 벽화가 더욱 선명하다.

주민 참여도 눈에 띈다. 한 주민이 공간을 무상 임대해 줘 누구나 쓸 수 있는 작은 화실도 만들 수 있었다. 대부분 작업이 작가와 주민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마을이 소중한 이유 중 하나다.

지금까지 벽화작업에 복지회 회원 600명(연인원), '나로인해' 100명, 자원봉사 150명 등 900명이 참여했다.

또 폐가를 매입해 '나로인해'의 작업실을 만들고 있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안내소도 조성하고 있다.

마을의 곳곳을 일몰을 도맡아 하는 목수 박성재(66)씨의 도움도 컸다. 박씨는 자신의 창고 문을 활짝 열고, 벽화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빌려주거나 직접 대패와 톱을 들고 도움을 주고 있다. 망치와 끌 등이 정갈하게 놓인 박씨의 창고는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 상품이 됐다.

이 벽화마을이 자리를 잡으면 인근에 조성된 태백산맥 문화길과 빨치산의 노래로 알려진 '부용산'의 여운이 깃든 부용산 시오리 오솔길을 연결하는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복지회는 앞으로 마을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작가들의 공방으로 꾸밀 계획이다. 벽화와 작가의 공방이 어우러진 이색 문화공간을 만들어 사람이 찾는 시골마을을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다. 현재 5곳을 매입·임대해 천연비누, 화장품 제조 공방, 도자기 공방, 색칠공방 등을 낼 계획이다.

드림은 사회복지회 장건 사무총장은 "주민과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가꾸는 예술촌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작가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